

## 강진군,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스포츠바우처 가맹시설 6개 종목·8개 시설 이용  
연인원 825명에게 월 1인당 8만 원 범위내 제공

강진군은 지난 12일 체육복지 취약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바우처 가맹시설 관내 6개 종목, 8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태권도, 합기도, 볼링, 스포츠댄스, 축구, 수영 등을 배울 수 있다.

강진군은 올해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825명에게 월 1인당 8만 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가구의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으로 출생연도 2003년~2016년까지의 출생자가 해당한다.

이미라 스포츠산업단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올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스포츠복지 소외계층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스포츠산업단(061-430-3824)로 연락하면 된다.



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스포츠산업단(061-430-3824)로 연락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아동양육에 따른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군이 이번에 지원하는 아동양육긴급생계비는 전액군비 2억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약 2,300명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10만원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긴급생계비임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이전

에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021년 1월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위기사유·소득기준 등 완화...3월 31일까지 운영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천 7백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 4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군 대덕읍, 경로당 순회 방문 '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장흥군 대덕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관내 49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송남신 대덕읍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로당 순회 방문을 진행하였다. 방문한 경로당에는 백미 10Kg와 취임 축하 화분을 전달하였다.

송남신 대덕읍장과 휘하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시 불편

사항과 읍정 발전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쳤다.

현장을 둘러본 송남신 대덕읍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고향인 대덕읍에 읍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대덕읍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무안군, 지붕개량·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실시

지붕개량 지원금액 확대·200㎡미만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무안군은 석면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9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225동의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과 주택 5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을 확대하여 200㎡미만의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15동의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주택은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철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폐기물 처리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완료 이후 지붕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군은 1월 말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환경과(☎ 061-450-557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면적을 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지붕개량사업 최대 지원금액을 427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증액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